

'생산량 광역시 1위' 광주 우리밀, 정부도 호평

밀 생산·면적, 전남·전북 이어 3위...광역시 중 1위
한국우리밀농협, 농림부 평가 '최우수 생산단지'

국내 밀 주산지 중 한 곳인 광주의 우리밀 육성사업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밀 생산단지 면적은 892ha로, 농도(農道)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 3위다. 광역시 중에서는 단연 1위다. 생산량도 연간 3568t으로, 국내 톱3에 포함됐다. 지난 2009년 8월 광주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우리밀 지원사업을 추진한 게 주요했다. 올해는 15억원을 투입해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지원(10억원), 생산비 지원(2억원), 경영체 시설·장비 육성지원(1억원), 소비촉진과 현장체험 지원(1억원), 교육컨설팅 지원(1억원)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밀가격이 급등한 점 등을 감안해 생산면적

을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어서 생산량 역시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외적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에 있는 '한국우리밀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2022년 우수국산밀 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시·도 22개 생산단지 중 지자체 자체 평가와 전문가그룹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9개소를 우수국산밀 생산단지로 선정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우리밀농협

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내년 농식품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상식은 19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10여년 간 국산밀 건조저장 시설과 생산비, 소비 촉진, 교육·컨설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 광역시 최초로 국산밀 생산량 전국 3위와 농림부 최우수 생산단지 선정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내년에는 수매용 톱백(이동형 대형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국산밀 생산과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재)룩수장학회, 소방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룩수장학회는 지난 1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소방공무원 자녀 총 40명(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20명)에게 2022년도 룩수장학금 5700만원을 수여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 북구 내년도 예산 '민생·녹색 성장·재난 안전'

광주 북구가 내년 예산을 9850억원 규모로 확정, 민생 회복·녹색 성장·재난 안전망 강화에 구성 역량을 집중한다. 북구는 2023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 9753억 원, 특별회계 9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294억 원(3.08%) 늘어난 9850억 원 규모다. 북구는 ▲더불어 경제 ▲포용 복지 ▲녹색 안전 ▲주민 품격 ▲생활 문화 ▲미래산업 분야 핵심과제 추진에 예산을 집중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하고 자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조성 8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5억 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광주시, 51개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통과

공공기관 3·대기업 1·중기 17개 등 21곳 새로 추가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두 21곳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광주시는 2022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1곳, 유효 기간 연장 13곳, 재인증 17곳 등 모두 51개 기업·기관이 최종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인증심사에서 21곳이 가족친화인증을 새롭게 획득해 지역 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모두 121곳으로 늘게 됐다. 신규 인증된 곳은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광주복지연구원 등 공공기관 3곳과

부여하고 있다.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광주의 경우 초창기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인증을 획득했지만 현재 여러 중소기업들이 모·부성 권리보장 제도를 준수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역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권영민 기자

본사 인사
▲ 편집국 제2사회부 국장대우 김 호
2022년 12월 19일자

광주시 자율차 운영, 정부 평가 '우수'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첫 평가 호평
광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영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며, 앞으로 매년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광주시는 특장차를 이용한 차별성,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한 실증데이터 수집, 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 통신 인프라 실험검증 노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평등산단·수완지구 일원에서 무인저속특장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했다. 올해 6월엔 빛그린산단, 침당2지구, 평동역~어등대로~영광로(14.2km) 구간을 추가로 지정 받았다. 추가 지정된 자율차 시범운영지구에서는 2024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연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과 기술 실증사업을 통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방열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지구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김영록 지사 "영산강 느리지 명품관광지화"

나주시·무안군 관광자원 개발사업 적극 지원 약속
김영록 지사가 한반도 지형을 빼닮은 '영산강 느리지'를 명품관광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관심이 모아진다. 느리지는 물길이 흐르면서 모래가 쌓여 길게 늘어진 모양을 표현한 순우리말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7일 나주 동강면과 무안 몽탄면에 있는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 전망대를 방문, 나주시와 무안군의 관광자원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나주의 최명수·이재태 전남도의원, 무안의 나광국·정길수 전남도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임성환 나주시의원, 이호성 무안군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는 유수의 흐름에 따라 형성됐다. 한반도 형상과 매우 유사해 매년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2019년 '영산강 느리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무안군은 2021년 '영산강 관광경관개선 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설계를 진행 중이다. /박종배 기자

강기정 시장 "시민불편 최소화...제설 철저"

강기정 시장은 18일 "월요일 오전까지도 눈 예보가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대설경보가 발효된 직후 연계교차로-계수교차로 구간 제설차량을 타고 현장을 지휘하는가 하면 철야근무로 고생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대설과 한파에 밤낮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눈이 계속 예보돼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흡연부스

맞춤제작

010-6265-0057

TALK